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 이 무주군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북한 태권도사범단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

### 문체부,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태권도를 명품콘텐츠로 개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양적 성장을 통한 1차 세계화를 마감하고 질적 성장으로 태권도의 2차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태권도의 질적 성장은 문화와의 결합에 달려있다. 태권도와 문화의 결합은 한국 전통의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태권도라는 하드웨어에 문화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확장성

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내달 중 구성해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 등 태권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태권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전반적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및 처방 정책과제 도출 등을 통해 국기 태권도가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내에 실무 특별진단팀(ITF)을 설치해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개발과 세부계획 수립 등 추진위원회의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무 특별진단팀(ITF)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태권도를 단순한 무예가 아닌 문화·관광과 연계되는 융합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네이마르, FC바르셀로나 복귀 계획 없어... "PSG 합류할 수도"

네이마르가 FC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ESPN FC는 28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네이마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 바르셀로나의 일원으로 참가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30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라이벌전을 끝으로 대회를 모두 마친다.

네이마르는 레알 마드리드전 종료 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프로모션

행사 참석차 중국으로 향한다.

ESPN은 네이마르가 중국에서 바르셀로나가 아닌 PSG행을 위해 파리로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네이마르의 이적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 막판 조율만 남았다.

한 소식통은 ESPN FC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마르의 아버지가 PSG 구단주와 논의 중이다. 네이마르는 세금 제의 후 연봉만 3000만 유로(약 392억 원)를 받는 초대형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27일 프랑스 언론



레퀴르는 이미 네이마르와 PSG가 협상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 다저스, 에이스급 선발 투수 영입 가능성

### MLB닷컴, "벌랜더보다 다르빗슈, 그레이에 더욱 관심 보이고 있어"



다르빗슈 유(텍사스 레인저스)



쇼니 그레이(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한국시간 8월 1일) 직전 에이스급 선발 투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8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다저스가 다르빗슈 유(텍사스 레인저스), 쇼니 그레이(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제스틴 벌랜더(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중 한 명을 영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정상급 선발 투수를 영입해야 1988년 이후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MLB.com은 "소식통에 따르면 다저스는 벌랜더보다 다르빗슈, 그레이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르빗슈는 올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그레이처럼 다년 계약이 가능한 선수들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르빗슈는 올 시즌 22경기에 선발 등판해 137이닝을 소화하면서 6승 9패 평균자책점 4.01을 기록했다.

시즌 개막 이후 꾸준한 모습을 보였지만, 7월 들어 승리없이 3패 평균자책점 7.20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텍사스는 다르빗슈의 트레이드와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MLB.com은 "어제 텍사스가 다르빗슈 트레이드에 나설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마이애미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에 그친 텍사스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레이는 올 시즌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97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6승 5패 평균자책점 3.43의 성적을 거뒀다.

2014년과 2015년 14승씩을 따내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발투수로 발돋움했다.

그레이의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여러 구단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MLB.com의 설명이다.

벌랜더는 메이저리그 통산 178승을 거둔 베테랑이다.

올 시즌에는 21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24이닝을 던지면서 5승 7패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했다.

MLB.com은 벌랜더의 몸값이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오랫동안 디트로이트 에이스로 활약한 벌랜더는 현재 계약상 2018년과 2019년 각각 2800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며 "연봉 총액을 줄이려고 애쓰는 다저스가 벌랜더의 연봉을 모두 보전하기를 원하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딩케르크' 음악감독 한스 짐머, 10월 한국 온다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60)가 첫 내한 공연한다.

27일 공연기획사 프라이빗커브에 따르면 짐머는 오는 10월 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론칭하는 가을 페스티벌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처음 인사한다.

영화음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는 짐머는 지난 20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딩케르크'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새삼 진가를 입증했다.

그는 '인터스텔라' '인셉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등 놀란 감독의 다른



작품 외에 '캐리비안의 해적' '글래디에이터' '라이언킹'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성으로 150편이 넘는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이카메미, 골든글로브, 그래미어워드에서만 36번의 노미네이션과 7번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짐머의 웅장한 음악 세계관을 라이브로 구현하기 위해 그가 직접 선발한 뮤지션들로 이뤄진 19인조 밴드가 함께 내한한다.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거장 짐머의 진두지휘 하에 합을 맞춰 친숙한 곡들을 라이브로 선사할 예정이다. 이 라이브 무대의 완성도는 이미 지난 4월 세계 최대의 음악 페스티벌로 통하는 미국의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서 위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2017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 '진정한 여유와 건강한 즐거움을 찾아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기획 아래 올해 처음 선보이는 축제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